

LE CAMPUS SPOT

The concept for <Le Campus> marked a unique collaboration between Hyatt Regency Charles de Gaulle and Virserius Studio. The Hyatt owners and operators wanted something truly different for the hotel with the idea of going back to school, and approached V/S about designing a unique yet flexible space that could be used for work or social functions. The strength of Virserius Studio is creating diverse experiences, pulling elements together in a holistic way so that guests and visitors alike would have an experience that will energize in a new and fresh way. To achieve that, they were able to push the design envelope whil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Hyatt's needs. The challenge was to create an optimal environment to boost cohesion, collaboration, and enable idea-sharing and solutions. With inspiration from the American college campus, V/S created an experience that is interactive, cool, and playful. Deliberate choices were made with the space planning. The open spaces of <Le Campus> comprise its core, the social hub and library where people can mingle, brainstorm and otherwise be together. The satellite offices and meeting spaces form the perimeter, but allow easy access back to the core where you are more social. Artist Le Monde was brought in to give the space an added edge. For others, the bold colors and textures will offer a welcome change from the more conventional office and meeting spaces. Meetings, events, and seminars are held in the 'LABOs' (meeting rooms), la 'Pic-Nic' (shared multi-functional space), and the social center. <Le Campus> is truly a space that encourages and supports that highly creative and participatory experience enjoyed by the busy, on-the-move professionals who work, meet, and socialize during their time at the Hyatt Regency.

<르 캠퍼스>는 하얏트 리젠시 샤를 드골과 비르세리우스 스튜디오가 협업하여 탄생된 독창적인 공간이다. 하얏트의 소유주와 운영자는 기존의 호텔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마치 학교에 온 듯한 분위기의 호텔을 원했고, 이에 비르세리우스는 업무와 사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가변적인 공간을 디자인했다. 비르세리우스 스튜디오의 강점은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다양한 공간 언어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투숙객이나 방문객 모두가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호텔의 필요사항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디자인의 영역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화합과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및 해결방안 창출 등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영감을 얻은 비르세리우스는 상호소통을 통해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평면구성은 신중하게 계획했는데, <르 캠퍼스>의 핵심인 개방형 공간에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교 공간과 도서관이 마련됐다. 사무실 및 회의실은 개방형 공간의 경계를 따라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좀 더 사교적인 개방형 공간과 바로 이어지며, 이와 함께 설치된 예술가 르 몽스트르의 작품은 공간에 세련미를 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모습의 사무실 및 회의실과는 차별화된 이곳의 강렬한 색상과 질감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변화로 나타난다. 그밖에 회의, 이벤트, 세미나 공간을 위해 '라보스'라는 이름의 회의실과 공용 다목적 공간인 '픽-닉' 그리고 사교 센터가 마련됐다. 결과적으로 <르 캠퍼스>는 하얏트 리젠시에 머무는 기간 동안 업무, 회의, 사교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활동적이면서 바쁜 전문 직업인에게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완성됐다. virseriusstudio.com

Design : Virserius Studio **Client :** Blackstone Group / Hyatt Regency Charles de Gaulle **Location :** Hyatt Regency Charles de Gaulle, 351 Avenue du Bois de la Pie, 95912 Roissy-en-France, France **Built area :** 800m² **Completion :** August 2014
Photographer : Eric Laignel

